

7-28-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레위기 4:1-35

말씀제목: 속죄제물로 한 번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기록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4 장 말씀은 온 세상을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셔서 한 마리 짐승처럼 피흘리시고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온 회중이 무지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 어린 수송아지를, 치리자가 무지하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을 때 흠 없는 숫염소를, 일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흠 없는 암염소 새끼를 속죄제물로 드려 피흘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피흘려 죽으심으로써 속죄제가 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드러진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하는데 진정 사무치는 감사가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이는 속죄제물로 드러진 예수를 믿는 것, 즉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자세히 공부해야 하느냐 하면 자세히 읽고 더 깊이 깨달아야 “나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대로 하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안 들어오시고, 성령이 안 들어 오시니 생명이 없는 것이며 생명이 없으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앞으로 한 마리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예언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는 멸시거리니이다...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잇들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시편 22 편 중에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보셨나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불타는 구덩이 속에서 시뻘건 벌레처럼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벌레처럼 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벌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너의 구속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쪽정이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흠을 것이라. 네가 주를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자랑하리라.”(사 41:14-16)

선지자 이사야는 미래에 나타나셔서 속죄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자들 앞에서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음이었, 그가 네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사 53 장 중에서)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진하여 속죄제물이 되시려고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윗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 상에서 자신이 속죄제물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제육시에서 제 구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구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마 27:45,46,50-53)

사도 바울은 속죄제물을 포함하여 율법 아래서 드러진 희생제물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드리신 희생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히브리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드리는 자들이 단 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러진 것이라.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히 10:1-10)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속죄제로 드리신 것을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써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히 10:11-14)

아멘! 할렐루야!